



전남 지역 농민들이 9일 전남도의회 앞에서 벼 경영안정대책비 50% 삭감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스

벼 경영안정대책비 50% 삭감... 전남 농민단체 '반발'

전남도의회와 전남도가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50% 삭감한 것과 관련 지역 농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농민수당 10만원 인상하는 대신 협의도 없이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삭감했다. 이는 아랫돌 빼서 잇돌 끼는 식의 농민 우롱'이라며 삭감을 즉시 철회하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등 지역 농민단체는 9일 전남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농업소득은 10년째 제자리다. 지금보다 농업 예산을 두 배 늘려도 모자라는 판에 돌려막기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농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밝혔다. 이어 "전남도와 도의회는 벼 경영안정대책비 삭감안을 철회하고, 농민수당은 별도 예산을 확충해 모든 농민에게 확대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최근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벼 경영안정대책비 228억원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는 예산안 심사과

“농민수당 10만원 올려주고 대책비 삭감”
 “아랫돌 빼서 잇돌 끼는 격... 삭감안 철회하라”
 전남도, 조정 이후 금액도 전국 최대 수준

정에 50%를 삭감, 최종 114억원으로 의결했다. 매년 60만원 씩 지급하던 농민수당을 내년부터 70만원으로 인상키로 하면서 관련 재원이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전남도는 2019년부터 소득보전 직불금 성격의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농민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ha당 61만원(농가 당 2ha 한도)을 지급했다. 총 사업비는 570억원 규모로 이중 도비가 228억 원, 나머지는 시군비로 채워졌다. 농민단체는 “농민들에게 지급해온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줄여 농민수당 예산을 늘려주겠다는 것은 조삼모사격 처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치솟는 생산비로 어려움에 처한 쌀농가의 소득안정과 주시인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대안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특히 2ha로 지급상한을 한정하면서 중소농들에게

- 지면 안내**
- ▶ “똑같은 일하면 비정규직은 더 많이 줘야... 왜 최저임금 주냐” 3면
 - ▶ “광주공항 이전, 기부대양여는 허상... 정부 직접개입해야” 9면

커다란 소득지원 효과를 보인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농민단체는 “기본소득이나 농민수당을 광계로 전혀 성격이 다른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줄이겠다는 것은 ‘아랫돌 빼서 잇돌 끼는 식’이다. 농민들을 우롱하는 시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이번 조정 이후의 금액인 285억원(도비 114억 포함)도 전국 최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전북·경남보다 두 배 이상 큰 규모이며, 일부 시·도는 이미 지원을 중단했거나 내년부터 50% 삭감하는 등의 조정을 진행 중이라고 전남도는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조정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다. 변화된 농정 환경 속에서 한정된 재원을 보다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불가피한 판단이었다”며 “벼 농가를 포함한 모든 농여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범위에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취재부

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 첫 6차 회동 17일째 열릴 듯 국방부·국토부·기재부·광주시·전남도·무안군 기부 대 양여·민간공항 선 이전 해법 찾기 등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광주 민간·군공항 무안공항 이전을 위한 첫 6차 회동(TF)이 오는 17일째 열릴 것으로 보인다. 첫 공식회동에서는 민간·군공항 이전과 지원 방안 등이 문구로 확정되는, 문서화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회동 결과에 따라 공항 이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9일 뉴스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광주·전남·무안·국방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 공항 이전과 직접 관련 있는 이해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6차 TF 첫 공식회동이 오는 17일째 광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달 19일 강기정 광주시장·김영록 전남지사·김산 무안군수·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4차 회동을 갖고 정부 보조 방안 등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한달여 만에 6차 TF 첫 논의가 진행돼 합의안 도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당시 4차 회동에서는 광주 민간공항 선 이전을 조건으로 한 군공항 이전,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에 맞춰 이전’, ‘광주시가 무안군에 지원키로 한 1조 원 가운데 부족분 3000억 원에 대한 정부 보조’, ‘무안지역 첨단 국가산단·기업 유치 등에 대한 신속한 지원’ 등에 대해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6차 TF는 3개 부처 장관과 실무자 등이 모두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공항이전에 필요한 큰 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국방부는 군공항 이전 로드맵을 제시하고, 국토부는 광주공항 이전부지 조성 계획, 기재부는 정부 예산 투입 방안을 공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예산 조달문제와 민간공항 선 이전, 군공항 추후 이전 문제는 최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2면에 계속) /뉴스스

5·18구묘지도, 옛 광주적십자병원도... 국가주도 보존·활용 국비예산 확보... 2028년까지 조성사업 추진

5·18민주화운동 희생자가 안장됐던 ‘옛 망월묘역’과 ‘옛 광주적십자병원’이 국비예산을 통해 보존된다. 광주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에 ‘5·18 구묘지 민주공원 조성사업 설계비’ 7억1300만원과 ‘옛 광주적십자병원 보존 및 활용사업 설계비’ 4억4500만원이 반영됐다고 9일 밝혔다. ‘5·18 구묘지’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희생자들이 청소차와 수레에 실려 매장된 곳이다. 전두환 정권의 묘지 폐쇄 시도에도 시민 참여로 지켜낸 대표적 5·18사적지다. 현재는 이한열 열사를 비롯한 민족민주열사가 안장돼 있다. 광주시는 이곳을 ‘빛의 혁명 발원지’이자 ‘K-민주주의 산 교육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관련 단체 대표와 추진협의체를 구성했다. 명칭은 ‘5·18 구묘지 민주공원 조성사업’이다. 2027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역사관 콘텐츠 구성에 대한 최종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옛 광주적십자병원’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피를 나누고 부상을 치료한 ‘생명 나눔의 역사적 현장’이다.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주요 배경으로 등장한다. 광주시는 국비를 활용해 건물 외관은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고 내부는 5·18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세대와 시민이 함께 기억하고 치유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설계는 2027년까지 완료하고 2028년까지 건물 보수·보강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공간 활용 방안은 전문가 상담과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향후 사회적 공감과 합의를 바탕으로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옛 광주교도소, 국군광주병원, 505보안부대 등 중요 5·18사적지에 대한 종합적 보존·활용 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전광훈 기자

Self **참숯구이**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 약품을 쓰지 않은 장어만 판매

영광 법성포 청산양만 명품 장어

**無항생제
無균
無소독제!**

1일 18회 순환여과 및 미생물 배양 청정시스템으로 국내산 청정 명품장어

HACCP
(위해요소관리우수)
해양수산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CCP) 적용지정업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 AQ-0026

무항생제
(NON ANTIBIOTIC)
해양수산부

인증기관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15-18-0001호

전국 500여 양만장중 무항생제 지정업소 단 1곳
 전국 500여 양만장중 HACCP 지정업소 단 3곳

예약문의 T. 062)233-9592

광주 동구 내남동 330-3(월남지구 호반2차 옆 슬바우주유소 옆)

저희 장어명가 청산 장어는 국내유일 무항생제 인증과 해썬(Haccp)으로 인증된 양어장에서 "무항생제, 무균, 무소독제"로 직접키운 명품장어입니다. 무항생제 장어 최고 품질!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에서 모시겠습니다.